

# 드라마 속 여성 앵커는 고단수?



'미스티' 김남주



'사랑은 뷰티풀 인생은 원더풀' 조은희



'날 녹여주오' 윤세아

간판 뉴스 앵커를 둘러싼 치열한 경쟁부터 협찬 의상을 둘러싼 숨 막히는 견제까지. 드라마 속 여성 앵커들은 은 꼬리 아홉 개는 달린 고단수들로 묘사된다.

지난해 김남주를 재발견하게 한 JTBC 드라마 '미스티' 속 고혜란은 보도국 내 권력 다툼의 최정점에 선 인물이었다. 사회부 말진 기자에서 9시 뉴스 앵커 자리까지 꿰찬 혜란은 성공한 여자, 아름다운 여자, 모든 걸 가진 여자, 자로 불리며 여성들의 '위너비'로 등극했다.

혜란은 단순히 프롬프트를 읽는 '전달자'가 아니었다. 탁월한 앵커 능력은 기반으로 직접 뉴스 아이템을 고르고 배열하는 능력까지 발휘하면서 그 권한을 두고 보도국장, 언론사 경영진, 나아가 사회 주요 인사들과 갈등을 빚는다.

또 완벽함을 유지하기 위해 하루가 다르게 치고 올라오는 유능한 후배들을 견제하는 일까지 게을리할 수 없었다.

## '사물인품' '날 녹여주오'... 의상·간판 뉴스 다툼 치열 현직 앵커서 "어느 정도 비슷하지만 상당 부분 달라"

최근 시작한 KBS 2TV 주말극 '사랑은 뷰티풀 인생은 원더풀'의 김설아(조은희 분)는 '휴수저'이지만 자신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 철저하게 자기관리를 하며 부단히 노력하는, 아침 가득한 앵커 서이다. 첫 방송에서는 선배 앵커로서 깜짝 출연한 오정연과 호흡을 맞추며 협찬 의상을 차지하기 위한 앵커 선·후배 간 기 싸움을 보여줬다. 오정연은 설아의 협찬 의상을 빼앗으며 "너희 부모님 치킨 가게 한다며? 개천에서 용산다"고 독설을 서슴지 않았다.

같은 날 첫발을 댄 tvN 주말극 '날 녹여주오'에서는 윤세아(아역 채서진)가 여성 앵커 나하영으로 분했다. 하영은 자신의 연인인 마동찬(지창욱) PD의 방송캡슐 프로젝트에 사고가 났다는 사실을 인지하고도 아픈 어머니를 생각해 메인 뉴스 앵커 자리를 받고 합구한다. 그의 갑작스러운 앵커 발탁을 둘러싸고 다른 앵커들은 뒷말이 무성하다.

그렇게 동찬이 실종된 동안 하영은 앵커로서 승승장구하지만, 20년이 지나 동찬이 옛 모습 그대로 나타나면서 위기에 처한다. 드라마에서 주로 야심과 독기 가득 찬 모습으로 묘사되는데 대해 실제 여성 앵커들은 어떤 반응을 보일까. 결론은 "어느 정도는 비슷하고 상당 부분은 다르다"였다.

한 지상파의 중견 앵커는 6일 통화에서 "대부분의 경우 앵커는 진행자로서 뉴스 상황 전반에 대한 준비와 공부를 많이 해 이해도는 높지만, 기사 배열 등에 대한 영향력은 없는 편"이라고 크고 다른 점을 설명했다.

그는 또 "의상도 여러 명이 등장하는 뉴스의 경우 서로 겹치지 않도록 신경 쓰는 게 있고, 각자 마음속으로 질투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극에서 묘사한 것처럼 그렇지는 않다"고 웃었다.

그는 간판 뉴스 앵커석을 둘러싼 경쟁에 대해서는 "7~8년 전부터는 간판 앵커로서 발탁을 위해 내부 오디션을 치른다. 그게 굉장히 치열하다"며 "물론 '비교적' 공정한 절차라 가끔 변수가 있기도 하지만 어쨌든 과거처럼 무조건 '라인'을 타거나 하는 것은 많이 줄었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나온서들은 어떤 반응을 보일까. 결론은 "어느 정도는 비슷하고 상당 부분은 다르다"였다.

한 지상파의 중견 앵커는 6일 통화에서 "대부분의 경우 앵커는 진행자로서 뉴스 상황 전반에 대한 준비와 공부를 많이 해 이해도는 높지만, 기사 배열 등에 대한 영향력은 없는 편"이라고 크고 다른 점을 설명했다.

그는 또 "의상도 여러 명이 등장하는 뉴스의 경우 서로 겹치지 않도록 신경 쓰는 게 있고, 각자 마음속으로 질투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극에서 묘사한 것처럼 그렇지는 않다"고 웃었다.

그는 간판 뉴스 앵커석을 둘러싼 경쟁에 대해서는 "7~8년 전부터는 간판 앵커로서 발탁을 위해 내부 오디션을 치른다. 그게 굉장히 치열하다"며 "물론 '비교적' 공정한 절차라 가끔 변수가 있기도 하지만 어쨌든 과거처럼 무조건 '라인'을 타거나 하는 것은 많이 줄었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 플라이투더스카이, 5년여만에 정규앨범

### 데뷔 20주년 '플라이 하이'

데뷔 20주년을 맞은 남성 듀오 플라이투더스카이(환희, 브라이언)가 새 앨범을 들고 컴백한다.

H2미디어는 7일 플라이투더스카이가 열번째 정규앨범인 '플라이 하이' (Fly High)를 이달 중순 발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 2014년 5월 '컨티뉴엄' (CONTINUUM) 이후 약 5년 5개월 만의 정규 앨범.

앨범에는 MFBTY(타이거 JK, 윤미래, 비지), MIII(미), 에일리, 김구봉, 백아연 등이 참여했다.

지난 1999년 데뷔한 플라이투더스카이는 'Missing You', '남자답게', '가슴 아파도' 등 많은 인기곡을 남겼다.



남성 듀오 플라이투더스카이의 환희(왼쪽)와 브라이언.

플라이투더스카이는 다음 달부터 MFBTY와 전국 투어 콘서트를 연다.

/연합뉴스

## 강해야 했던 장애아 엄마들 지친 삶 '침표'

### MBC '엄마의 가을' 오늘 방송

MBC TV는 8일 장애아 엄마들의 이야기를 그린 '나눔 특집, 2019 엄마의 가을'을 방송한다고 7일 예고했다.

방송에서는 레녹스-가스토 증후군을 앓는 태연과 엄마 로미 씨의 사연이 공개된다.

목욕 가능 수도, 앉았을 수도, 말을 할 수도 없는 아이여서, 하나부터 열까지 모든 걸 견뎌야했던 로미 씨는 강해질 수밖에 없었다. 항상 아프기만 했던 아이가 웃는 것 만큼 로미 씨에게 강력한 응원도 없었다.

이름도 생소한 재조합 8번 염색체 중복 증후군을 앓는 10살 소녀 재연이와 엄마 은정 씨의 이야기로 전파를 탄다.

다들 포기하려던 재연이의 걸음마를 위해 경주에서 대구까지 숨 가쁘게 이어지는 재활 치료를 오간 은정 씨 덕분에, 재연이는 6살이 되던 해 스스로 걸음마를 선했다.



이렇듯 오로지 아이를 위해서만 살아온 엄마들에게 제작진은 '힐링'의 시간을 선물했다. 엄마들은 시원하게 펼쳐진 강원 동해시의 아름다운 절경 속에서 함께 걷고 함께 웃으며 지냈던 시간에 잠시나마 침표를 찍어본다.

오늘 오후 12시 20분 방송. /연합뉴스

## TV프로그램 8일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KBS1	KBS2	MBC	SBS/KBC
[6]	00 KBS 뉴스광장	00 걸어서 세계속으로 50 생방송 아침이 좋다	00 MBC 뉴스투데이 1~2부	00 모닝와이드 1~2부
[7]	50 인간극장		20 광주 MBC 뉴스투데이 50 모두 다 쿵따리(재)	35 KBC 모닝 730
[8]	25 아침마당	00 KBS 아침 뉴스타임	30 생방송 오늘 아침	30 닥터 365 45 수상한 장모
[9]	30 KBS 뉴스	00 여름아 부탁해(재) 40 무한리필 샐러드	30 930 MBC 뉴스 45 기분 좋은 날	10 좋은 아침
[10]	0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40 지구촌 뉴스	45 어쩌다 발견한 하루(재)	10 SBS 뉴스 20 KBC 생활뉴스 30 살맛 나는 오늘
[11]	00 다큐 공감 50 생활의 발견 스페셜	00 조선로코-녹두전(재)		00 꾸러기 탐구생활 30 요리조리 맛있는 수업
[12]	00 KBS 뉴스 12	10 제100회 전국체육대회 양궁, 수영, 육상, 펜싱, 태권도	00 12 MBC 뉴스 20 MBC 나눔특집 엄마의 가을	00 SBS 12뉴스 25 민방 네트워크 뉴스 50 지식 통조림 55 최강 1교시(재)
[1]	00 차도삼국지(재) 50 KBS 재난방송센터(재)		30 헬로킴지 신비한 자연교실 2 50 2시 뉴스외전	55 닥터 365
[2]	00 KBS 뉴스 10 추억하라 콘서트 7080			00 뉴스브리핑
[3]	30 아생여정(재)		20 뽀뽀모모 두아 놀자 스페셜 50 뽀뽀모모 두아 놀자	
[4]	00 사사건건	00 무한리필 샐러드(재)	20 모두 다 쿵따리	00 고향견문록 스페셜
[5]	00 KBS 뉴스 5 30 전국을 달린다 40 남도 지오그래피	00 다큐 공감(재)	00 5 MBC 뉴스 25 경성판타지	00 SBS 오뉴스 45 KBC 저녁뉴스
[6]	00 6시 내고향	00 KBS 경제타임 30 2TV 생생정보	25 오매! 전라도	00 영재발굴단(재)
[7]	00 KBS 뉴스 7 40 전라도 매력청	50 태양의 계절	30 MBC 뉴스데스크	00 닥터 365 05 생방송 TV블로그 쏘지락
[8]	30 여름아 부탁해	30 글로벌24 55 거리의 만찬(재)	55 한편으로 정주행 <자체발광 오피스>	00 SBS 8 뉴스 35 KBC 8 뉴스 55 본격연예 한밤
[9]	00 KBS 뉴스 9			
[10]	00 역사저널 그날 55 더 라이브	00 조선로코-녹두전	05 한국방송대상수상 핑크피쉬	00 불타는 청춘 1~3부
[11]	35 UHD 숨터 40 시사기획 창(재)	10 지식채널E 프로젝트 배짱이 스페셜	05 PD수첩	
[12]	35 KBS 뉴스 45 KBS 걸작 다큐멘터리(재)	05 스포츠 하이라이트 30 KBS 드라마 스페셜 2019(재)	00 100분 토론	00 나이트 라인 30 전국 TOP 10 가요쇼(재)

## EBS1

07:00 로보가 폴리	12:10 건축탐구 - 집	17:45 띠띠뽀 띠띠뽀(재)
07:15 꼬마버스 타요	13:00 EBS 다큐프라임	18:00 생방송 특!특! 보니 하니
07:30 뽀뽀뽀 뽀로로	13:55 미래교육 플러스	19:00 스파이더맨
07:45 페파 피그	14:45 물방	19:30 생방송 판다다
08:00 땡땡땡 유치원	14:55 꼬마버스 타요(재)	20:00 TV로 보는 원작동화
08:30 띠띠뽀 띠띠뽀	15:10 로보가 폴리(재)	20:40 세계테마기행 1~2부 <중국 명산 기행-천하제일 황산>
08:45 최고! 호기심딱지	15:25 제로니모 스틸턴의 모험	21:30 한국기행 <그곳에서 단 하루 2부>
09:00 출동! 슈퍼윈드	15:55 출동! 슈퍼윈드(재)	21:50 EBS 다큐프라임
09:30 원더볼스	16:10 최고! 호기심딱지(재)	22:45 건축탐구 - 집
10:00 지식의 기쁨	16:25 마샤와 곰(재)	23:35 미래교육 플러스
10:30 한국기행	16:40 땡땡땡 유치원(재)	24:25 지식의 기쁨(재)
10:50 최고의 요리비결	17:00 EBS 뉴스	
11:20 세계테마기행(재)	17:20 그림을 그려요	
12:00 EBS 정오뉴스	17:30 페파 피그(재)	

##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10월8일(음9월10일 戊寅)

<p>36년생 마음을 터놓고 얘기 해본다면 쉽게 합치하리라. 48년생 달리는 말에 재작질을 가해야 할 시기에 와 있다. 60년생 상서로운 빛이 비치니 길한 조짐으로 봐도 된다. 72년생 미리 예상하고 있어야만 충격을 완화 할 수 있다. 84년생 속단 하다가는 오류를 남길 수밖에 없다. 96년생 기본적인 것을 잘 지키다면 관계가 돈독해질 것이다. 행운의 숫자 : 54, 49</p>	<p>30년생 핵심에서 벗어나고 있다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 42년생 먼 길 떠난 과객 앞에 날이 저문 형상이다. 54년생 구대의 연환에서 벗어나야 잠신환을 추구할 수 있다. 66년생 일상에 충실하다보면 특별한 이익이 있을 것이다. 78년생 합리적으로 처리한다면 적폐가 해소되면서 불만없이 사라지리라. 90년생 걱정스러워서 마음이 편치 않았다. 행운의 숫자 : 53, 67</p>
<p>37년생 대상을 잘 선정해야 효과가 높아질 것이다. 49년생 거시적인 관점이 용이하다. 61년생 겉과 속이 다르니 현혹 되기 쉽다. 73년생 실질적인 이익은 적고 할 일은 많겠다. 85년생 총체적인 대책이 수립되어야 한다. 97년생 고질적인 문제점이 해소되어 후련하겠다. 행운의 숫자 : 18, 80</p>	<p>31년생 쉽게 해결될 것이니 부담감을 버려도 된다. 43년생 이익 앞에서 참예한 대담을 하게 된다. 55년생 철저히 대비 하고 있어야 한다. 67년생 전혀 상관없으니 완전히 무시해도 되는 조후이다. 79년생 약진하는 길목에 들어서고 있는 나라. 91년생 막혔던 숨통이 터지는 활로가 보일 것이다. 행운의 숫자 : 82, 39</p>
<p>38년생 마음속에 새겨서 잊지 않음이 옳다. 50년생 상대가 심정의 변화를 일으킬 가능성이 크다. 62년생 조금만 자제 한다면 불만없이 사라질 것이다. 74년생 행운으로 연결될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다. 86년생 똑같이 인식한다면 큰 혼란으로 이어지느니라. 98년생 낙관하기에는 시기상조임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 행운의 숫자 : 09, 79</p>	<p>32년생 주체적으로 판단하지 않는다면 후회한다. 44년생 의외로 터디게 진행되는 형상이 비친다. 56년생 분산된다면 핵심에 집중하기 힘들어진다. 68년생 약담 끝은 없어도 덕 끝은 있느니라. 80년생 다 잡은 고기를 놓칠 수도 있을을 알아야 것이다. 92년생 항해하는 선박의 풍향이 수시로 변하는 이치이니라. 행운의 숫자 : 17, 62</p>
<p>39년생 밖에 이로우미 있다. 51년생 지난 날 쌓아 놓은 실적에 의해서 작수 받을 일이 있다. 63년생 아차 하는 사이에 혼란의 소용돌이에 서 있을 수다. 75년생 신빙성을 참고하지 않는다면 오만의 소지가 다분한 판국에 위치하느니라. 87년생 파문을 몰고 오면서 복잡해질 것이다. 99년생 조금씩 속통이 터지면서 자생력이 되어 준다. 행운의 숫자 : 91, 15</p>	<p>33년생 상식선에서 해결하는 것이 가장 무난하다. 45년생 기회가 왔으니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할 때이다. 57년생 잘 살펴 보지 않는다면 결정적인 패인을 놓는다. 69년생 관점의 한계가 파격적인 기회의 수용을 저해할 수 있다. 81년생 과정은 힘들더라도 이익이 따를 것이니 행함이 이로우리라. 93년생 기본적인 역할에 빈틈이 없어야겠다. 행운의 숫자 : 93, 86</p>
<p>40년생 주변 반응일량 차차하고 주판대로 밀고 나아가자. 52년생 상대의 태도에 좌우되지 말고 주체적으로 대응 하자. 64년생 절실히 필요하다면 반드시 확보해 두는 것이 생산적이다. 76년생 점점 관심을 끄는 일이 생기리라. 88년생 인식 한 예감과 실제 사실을 엄격히 구분하라. 00년생 무가치하다면 의미를 부여할 이유가 없느니라. 행운의 숫자 : 07, 77</p>	<p>34년생 무리하게 행하려 한다면 하지 않음만 못 하다. 46년생 좌충우돌하면서 다시다난 하리라. 58년생 희구 한다면 실제의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 바람직하다. 70년생 균형 감각을 상실한다면 곤란해질 것이다. 82년생 변변치 못한 결과 앞에서 상심해 하는 형상이다. 94년생 바로 코앞에 있는 이가 바로 그 장본인이다. 행운의 숫자 : 21, 60</p>
<p>41년생 이면까지 고려하자. 53년생 말만 삼키고 쓰면 뱉어 내는 이가 보인다. 65년생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미루지 말고 지금 보충해 줘야만 한다. 77년생 이전과 똑같은 상황만 되풀이 될 뿐이니 일찌감치 접어버리는 것이 낫다. 89년생 말리서 들려오는 우렛소리이니 놀랄 필요는 없다. 01년생 원만한 소통이 필요한 때이니라. 행운의 숫자 : 20, 88</p>	<p>35년생 명쾌해야만 뒤말을 없앨 수 있다. 47년생 막연하다면 실랑림만 안겨 줄 뿐이다. 59년생 입장을 바꾸어 놓고 생각해 보는 것이 지혜롭다. 71년생 필연적이라면 적극 나서는 것이 마땅하다. 83년생 노후하지 않고도 얼마든지 표현할 수 있다. 95년생 일관된 유지가 실력의 기반이 되어 주리라. 행운의 숫자 : 30, 07</p>